

# 악성 흉막삼출액 환자에서 흉막강내 Cisplatin과 Cytarabine 병합화학요법의 유용성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과

김기원, 박용현, 배혜경, 이인석, 김선우, 서지원, 박석영

악성 흉막삼출액은 진행된 폐암, 유방암등의 악성 종양환자에서 흔히 발생되어 여러 가지 유병율을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악성 흉막삼출액의 치료법으로는 흉관삽입술과 흉막강내로의 경화약제를 투여하는 흉막유착술이 흔하게 사용되었지만 치료 성공률이 낮거나 관해 유지기간이 짧았다(평균 69%, 32일). 반면에 흉막강내의 항암제 투여는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흉막강내 높은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최근 그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들은 악성 흉막삼출액으로 진단(폐암 26예, 기타 3예)된 환자 29명(평균 60.2세 40-76)을 대상으로 31예에서 흉막강내 Cisplatin 100 mg/m<sup>2</sup>과 Cytarabine 1200 mg/m<sup>2</sup> 병합화학요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총 31예중 평가가 가능한 29예에서 완전관해는 24예(82.8%), 부분관해는 3예(10.3%)로 27예(93.1%)에서 효과가 있었다.
- 2) 사망한 환자 25명 27예중 평가가 가능한 17예에서 사망시 14예(82.4%)에서 완전관해 상태를 유지하였고 단지 3예(17.6%)에서만 삼출액이 관찰되었다.
- 3) 관해유지기간은 평가가 가능한 24예에서 평균 7.5개월이었다.
- 4) 흉막강내 직접주사 병합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는 WHO 독성 기준에 따라 grade 4 골수억제 1예, grade 2 골수억제 1예, grade 1 골수억제 3예(9.7%)였고, grade 3 오심/구토 3예, grade 2 오심/구토 15예(48.4%)였으며 그밖에 발열 10예(32.3%), 농흉 2예, 창상 감염 2예가 관찰되었다. 동통은 grade 3 4예, grade 2 7예(22.6%)이었다.

결국 악성 흉막삼출액 환자에서 흉막강내 Cisplatin과 Cytarabine의 병합화학요법은 탁월한 치료반응을 보이고 관해유지기간도 길었으며 부작용이 적어서, 악성 흉막삼출액의 증상완화 및 생존기간의 연장 그리고 관리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으로 판단된다.

# Metoclopramide/Dexamethasone/Lorazepam에 불응성인 환자에서 Granisetron/Dexamethasone의 항구토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김동원\*, 방수미, 변재호, 장홍문, 정경혜, 허대석, 방영주, 김노정

**목적** Granisetron은 우수한 항구토효과를 보이는 serotonin 수용체 차단제이다. 또한 granisetron과 dexamethasone을 함께 사용하면 항구토효과가 더 증가된다는 결과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항암제 유발 구토의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metoclopramide/dexamethasone/lorazepam 병합요법 (MDL요법)이 실패한 환자에게 granisetron/dexamethasone을 병용투여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6년 9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 내과에서 60 mg/m<sup>2</sup>/day 이상의 cisplatin을 포함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받는 환자들에게 항구토요법으로 MDL요법을 시행하였다. 이들 중 1-2차 화학요법 기간에 MDL요법이 실패하고 이후 동일한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granisetron/dexamethasone을 투여하였다. MDL요법은 화학요법 첫날 cisplatin 투여 전후로 metoclopramide 2 mg/kg를 각 1회 정주하고 cisplatin 투여 전 dexamethasone 20 mg, lorazepam 1 mg을 정주한 뒤 이후 4일간 dexamethasone과 metoclopramide를 경구투여하였다. Granisetron/dexamethasone 요법은 화학요법 첫날 cisplatin 투여 전 granisetron 3 mg, dexamethasone 8 mg을 정주하고 이후 4일간 granisetron과 dexamethasone을 경구투여하였다. 치료효과는 항암제 투여 후 5일간 구토여부를 매일 평가하여, 완전반응은 24시간동안 구토가 전혀 없는 경우, 주반응은 1-2회, 치료실패는 3회 이상의 구토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완전반응 및 주반응을 보인 경우 유효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치료 후 24시간이내의 구토는 급성구토, 이후는 만성구토로 정의하였다.

**결과** 총 20명의 환자가 MDL요법 실패 후 granisetron/dexamethasone 치료를 받았다. 남녀 비는 9:11이었고 연령중양값은 55세(35-67세)였다. 급성구토조절에는 완전반응 75%, 주반응 15%로 90%(95%CI=69.9-97.2%)에서 유효하였고 만성구토조절에는 완전반응 30%, 주반응 50%로 80%(95%CI=58.4-91.9%)에서 유효하였다. 급성구토와 만성구토의 조절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효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완전반응율은 급성구토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4$ ). 합병증으로는 팔콕질, 두통 등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투약중지나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았다.

**결론** Granisetron/dexamethasone 요법은 MDL 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서 우수한 항구토효과를 보였으며 급성구토의 조절에 보다 우수하였다.